

Rosenberg, Jay, *Thinking about Knowing*
(Oxford: Clarendon Press, 2002). VIII + 257

김기현

(서울대학교 철학과)

『아는 것에 대하여 생각함』이라는 로젠버그의 책은 스스로 서론의 첫 문장에서 말하듯이, 하나의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서술된 책이라기 보다는 현대인식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들을 다루는 느슨하게 연결된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그의 논의가 현대인식론의 여러 논점들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나, 그의 논의는 현대 인식론자들에 머물지 않고 데카르트, 칸트, 셀라스(Wilfrid Sellars), 무어(G. E. Moore), 피어스(Charles Peirce)와 같은 중요한 인식론자들의 소개와 그들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 책은 전통적 인식론의 맥락 속에서 현대 영미철학적 전통의 인식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흥미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현대인식론의 다양한 논점들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로젠버그의 독창적인 관점 또는 이론이 자연스럽게 부상한다. 그의 이론은 다양한 측면이 있어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몇 개의 핵심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비회의론, 절차론, 관점론, 내재론을 그러한 특징의 후보로 제시할 수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꾸려나가지.

1장과 5장은 회의론을 다룬다. 로젠버그는 자신의 논의의 출발을 데카르트

적인 회의론에 대한 공격에서 시작한다. 데카르트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외부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인식론이라 부르는 것을 가능하게 한 철학자다. 외부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근거는 경험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데카르트의 논증은 시작한다. 그는 동일한 경험이 전능한 기만자에 의하여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함으로써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의 근거를 흔들어 놓았다. 이 가설은 때로는 동일한 요지를 전달하는 다른 가설(예를 들어, 우리는 컴퓨터로부터 자극을 받고 있는 통 속의 용액에 떠 있는 뇌라는 가설)을 통하여 여러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가설들이 제기하는 문제, 즉 감각 경험으로부터 외부 세계를 추론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문제는 영국경험론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식론자들을 괴롭히고 있고 아직까지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 로젠버그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대적하여 외부세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데카르트의 회의론에 대응하지 않고, 데카르트적인 회의론이 발생하는 동기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그 동기가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한다. 그에 따르면, 어떤 믿음은 논란의 대상이어서 증거를 통하여 입증될 필요가 있는가, 어떤 믿음은 그대로 수용 가능하며 증거를 통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진공 속에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논의가 전개되는 구체적 맥락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많은 경우에는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적 믿음은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지며, 이들을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낯선 것으로 이런 회의적 도전 자체가 우선 정당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장 역시 데카르트의 인식론을 다루는데 오류주의 Fallibilism의 논의에 핵심을 맞춘다. 로젠버그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오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즉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많은 증거와 근거를 통하여 옹호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거짓으로 판명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주어진 맥락 속에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될 필요가 있는 믿음의 경우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맥락에서 더 이상 입증될 필요 없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로젠버그가 확신 certitude라고 부르는 태도)의 경우에도 마

찬가지다. 그는 오류가 없는 믿음에 근거하여 지식체계를 재구성하는 데카르트적인 시도는 불가능하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는 데카르트의 꿈은 아무 것도 믿지 않음으로써만 성취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데카르트를 비판한다.

현대인식론의 관점에서 볼 때 1장, 2장, 5장의 논의는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라 그에 대한 회의론적인 도전이 오히려 먼저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현대 인식론에서 오늘날 많은 주목을 끌고 있는 맥락주의 Contextualism의 주장이다. 그리고 오류주의도 새로운 것이 없으며, 이것이 데카르트의 회의론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기존의 인식론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로젠버그의 새로운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3장과 4장, 6장에서 나타난다.

4장은 1960년대 현대 영미 인식론의 부흥의 계기가 된 게티어Gettier 문제를 다룬다. 게티어 문제는 미국의 철학자 게티어 Edmund Gettier가 제시하여 그러한 이름을 얻었고, 지식에 대한 전통적 정의가 틀렸음을 보임으로써 명성을 얻은 문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지식은 정당화된 참인 믿음으로 간주되었다. 게티어는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면서 지식이 아닌 경우들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 울타리에 있는 100마리의 동물들 중에 99마리의 나귀가 얼룩말처럼 위장되어 있고 그 중에 한 마리만 실제 얼룩말이라고 하자. 그 장소에 얼룩말이라는 표지판까지 붙어 있으며 나귀들은 정교하게 칠하여져 나는 그들을 얼룩말로부터 구분해낼 능력이 없다고 하자. 이 경우 내가 한 마리 동물을 보고 그것이 얼룩말이라고 믿었는데, 실제로 나는 운이 좋게 얼룩말을 보았다고 하자. 이 경우 내가 과연 내가 본 것이 얼룩말이라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닌 듯하다. 그런데 이 믿음은 증거(얼룩말에 대응하는 바의 적절한 시각적 경험, 표지판에 나타난 표기 등)에 의하여 뒷받침된 정당한 믿음이면서, 참인 믿음이다. 즉, 정당한 참인 믿음이다. 그렇지만 지식이 아니다. 이러한 반례가 구성될 수 있는 이유는 증거가 결론을 필연적으로 함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갖고 있는 증거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필연적으로 얼룩말임을 보장하는 그런 증거이었더라면, 즉 나의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나의 믿음이 오류불가능한 믿음이었더라면, 위와 같은 반례가 구성되지 않았을

것이다.(이것이 2장의 논의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처음 제기된 이후에 인식론자들의 엄청난 에너지를 흡수한 게티어 문제에 대하여 로젠버그는 나름의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의 해결책의 중심에는 1인칭적 관점과 3인칭적 관점의 구분이 놓여있다. 즉, 위의 예에서 나타난 믿음은 일인칭적 관점에서 볼 때는 스스로 최선을 다한 인식적으로 정당한 믿음이지만, 서술자, 즉 3인칭적 관점에서 볼 때는 증거 수집과 믿음의 진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는 인식적으로 결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에서 나타난 믿음은 인식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따라서, 1인칭적 관점만 고려한 배경에서는 위의 예는 지식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에 대한 반례가 되지만, 포괄적인 3인칭적 관점에서는 반례가 아니라는 것이 요점이다. 여기에서 나타난 게티어의 문제를 다루는 로젠버그의 관점에는 관점론 Perspectivism적인 특성 뿐 아니라, 절차론 Prodeduralism적인 특성도 드러난다.

그의 절차론은 3장에서 선명히 나타나는데, 그에 따르면 인식적 정당성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믿음에 대하여 인식 주관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모든 믿음의 인식적 정당성은 기본적으로 인식자 자신이 그 믿음을 정당화하는 능력에 의존한다. 이러한 입장을 로젠버그는 절차론이라고 부른다. 이 입장에서는 한 믿음이 정당한가의 문제는 결국 그 문제와 관련하여 인식 주관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인식 주관의 정당성으로부터 파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결론이 따른다. 이러한 입장은 사실 기존의 인식론 논의에서는 내재론이라고 불리는 입장이다.

로젠버그의 논의 중에서 가장 독창적인 부분은 6장이다. 로젠버그는 인식적 탐구의 목적은 진리가 아니라 인식적 정당성이라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로젠버그는 지식은 적절히 정당화된 믿음 *adequately justified belief*이라는 놀라운 주장을 끌어낸다. 이 주장이 놀라운 이유는 지금까지 인식론자들에 의하여 진리의 추구가 인식적 행위, 또는 인식적 평가의 목표라는 점은 아무 이의 없이 자명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리가 지식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왔던 것이다. 거짓인 지식이라는 말

이 모순처럼 들릴 만큼, 진리는 지식의 중요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데, 로젠버그는 이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로젠버그의 중요한 동기 또는 근거는 진리는 우리의 인식적 행위를 규제하는 데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는 우리의 인식 행위는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증거의 공간 속에서 믿음들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믿음에는 진리를 결정할 특성들이 노출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신빙성을 확립하기 위한 아무런 독립적인 수단이나 믿음의 정당성과 진리의 연관성을 확보할 아무런 독립적인 수단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거기에 제대로 도달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없는 진리를 탐구의 목표로 삼을 수 없다고 로젠버그는 주장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로젠버그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인식 행위는 주어진 증거를 통하여 최선의 설명과 증거에 합당한 믿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한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한가의 문제는 결국 인식 주관이 그 믿음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하였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여기서 진리는 우리의 인식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인식적 탐구의 목표가 될 수 없고, 정당한 믿음이 인식적 탐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식적 탐구의 문제는 항상 구체적인 맥락에서 구체적인 논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어떤 회의적 도전에 응전하여야 하는가는 그 주어진 맥락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이 맥락에서 일정한 믿음들은 더 이상의 입증이 필요 없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회의적 도전과 응전의 문제는 이렇듯 구체적 논점과 맥락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믿음 일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의심을 제기하는 데카르트식의 회의론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대응할 필요가 없는 회의론이다. 게티어 문제도 진리를 고려하지 않고 인식 주관의 최선을 다하였는가라는 관점에서 해명될 수 있다.

로젠버그의 논의는 인식론의 심오한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그 논의 과정에서 수많은 역사적인 인식론자들을 언급하고 있어 상당한 폭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독창적인 관점이 구체적이고 논증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다. 인식정당성을 절차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앞

서 설명하였듯이 현대인식론에서의 강한 내재주의적 특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내재주의는 현대인식론에서 하나의 정론처럼 굳어져 있는 입장이라기 보다는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인 입장이다. 한 인식자가 믿음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것과 믿음 자체가 참일 확률이 높다는 것 사이에 어느 것을 인식정당성을 규명하기 위한 우선적 입장으로 삼을 것인가는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다. 그리고, 진리가 인식적으로 접근되지 않는 대상이므로, 진리가 아닌 정당성이 인식적 탐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큰 논란의 대상이다. 우선 주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노릴 수 있는 최선이 인식정당성이라는 사실로부터, 진리가 지식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저진 지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순인 것처럼 들리는 것이 해명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식적 접근가능성이 평가 목표의 필요 조건이 되어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목표 지점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모르고 길을 가고 있다고 하여, 내가 얼마나 목표에 가까이 왔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로젠버그의 주장은 그의 다른 주장과도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티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언급한 일인칭 관점과 삼인칭 관점의 차이의 구분과 충돌한다. 일인칭 관점에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하여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인식적 탐구의 목표를 일인칭적인 것에 제한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그리고 회의론에 대응하는 그의 방식과도 충돌한다. 일정한 맥락에서 일정한 믿음이 입증할 필요 없이 수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주어진 맥락에서 참이라고 가정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이유가 단지 정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가정으로 마칠 수 없다. 정당성은 증거에 의하여 입증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되어야 일관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진리는 로젠버그가 버릴 수 없는 개념으로 보인다.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로젠버그는 기존의 논란과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앞에

말한 대로 자신의 이론이 다른 논점들을 논의하는 중에 거품처럼 생겨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이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가능한 반박들을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러한 노력의 흔적이 책에는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기존의 철학자들의 이론을 다룰 때에도 어디까지가 해석적이고 어디까지가 자신의 이론인지가 분명하지가 않다. 이러한 점은 책의 중대한 결함으로 보인다. 이론의 숲 속에 자신의 입장을 감추고, 이를 통하여 가능한 반론들로부터 자신의 이론을 보호하려 하는 것은 밖에 내놓아보지 않은 화초의 생명력을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